

20. (가)와 (나)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①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하여 풍자적으로 비판하고 있다.

→ 역시나 화자가 말을 걸거나 부르는 청자가 제대로 드러나는지 확인합시다.

③ 시적 대상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의지를 지닌 존재로 나타내고 있다.

→ 활유법이 쓰였는지 확인합시다. 무생물이 생물처럼 표현된 부분이 있는지를 봐야 해요. 물론, 의인화도 생명력을 부여한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.

(가)

선달에도 보름계 달 밝은 밤

㉠ 앞내강 쟁쟁 얼어 조이던 밤에

내가 부른 노래는 강 건너 갔소

㉡ 강 건너 하늘 끝에 사막도 닿은 곳

내 노래는 제비같이 날아서 갔소

못 잇을 계집애 집조차 없다가에

가기는 갔지만 어린 날개 지치면

㉢ 그만 어느 모래불에 떨어져 타서 죽겠쥬.

사막은 끝없이 푸른 하늘이 덮여

㉣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* 오는 밤

㉤ 밤은 옛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내나니

한 가락 여기 두고 또 한 가락 어디멘가

내가 부른 노래는 그 밤에 강 건너 갔소.

- 이육사, 「강 건너간 노래」 -

* 조상 : 남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뜻을 드러내어 위문함.

(나)

한 줄의 시(詩)는커녕

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

그는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며

많은 돈을 벌었고

높은 자리에 올라

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

그리고 어느 유명한 문인이

그를 기리는 묘비명을 여기에 썼다

비록 이 세상이 잿더미가 된다 해도

불의 뜨거움 곳곳이 건디며

이 묘비는 살아 남아

귀중한 사료(史料)가 될 것이니

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며

시인(詩人)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

- 김광규, 「묘비명(墓碑銘)」 -

→ 역시나 실제 출제된 문제의 지문 중 일부입니다. (가)에서는 '노래'라는 무정물(무생물)이 '강 건너 갔'다고 표현하여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(유정물)처럼 표현했습니다. (나)는 '묘비'라는 무생물이 '살아 남'는다고 표현하여 살아있는 것(유정물)처럼 표현했네요. 이런 것들이 생명력을 부여한 예시이자 활유법의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

→ 활유법 : 무정물을 감정이 있는 유정물처럼 표현하는 수사법.

⑤ 반어적 어조를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.

→ 반대로 말하는 것!

35. ㉠과 ㉡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① ㉠과 ㉡은 모두 화자가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소재이다.

→ 문학 개념이라기보단 어휘력에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넣어두었습니다. 존경심 + 두려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
→ 경외감 :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감정.

43.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② 빈번하게 장면을 교차하여 상황의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.

→ 서술하는 사건을 자주 바꾼다는 말입니다. 역시나 정답으로 출제될 확률이 낮은 선지입니다.

⑤ 시간의 역전을 통해 인과 관계를 재구성한 서사를 함께 제시하여 사건의 내막을 감추고 있다.

→ '과거 → 현재' 순이 정상적인데 이게 뒤바뀌는 거죠. '현재 → 과거'처럼요!

1906

28. (가), (나)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② (나)는 청각의 시각화를 통해 소재의 생동감을 부각하고 있다.

→ 공감각적 심상을 물어봅니다. 소리와 관련된 이미지를 보이는 것처럼 표현했는지 확인합니다.

득음은 못하고, 그저 시골장이나 떠돌던
소리꾼이 있었다, 신명 한 가락에
막걸리 한 사발이면 그만이던 흰 두루마기의 그 사내
꿈속에서도 폭포 물줄기로 내리치는
한 대목 절창을 찾아 떠돌더니
오늘은, 왁새 울음 되어 우항산 출발을 다 적시고
우포늪 둔치, 그 눈부신 봄빛 위에 자운영 꽃불 질러 놓는다

→ 실제 이 문제가 출제된 지문의 일부입니다. 왁새 '울음'이라는 청각적 이미지를 '꽃불'을 지른다고 표현했어요. 보이는 이미지로 시각화한 겁니다. 참고로 꽃불은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을 의미해요.

③ (가)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, (나)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.

→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지는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. 그리고 그 대상을 바라볼 때 시선을 옮기지 않고 한 곳만 바라보는지, 시선을 이동하는지도 확인해야겠네요.

④ (가)는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, (나)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.

→ 특정 시구가 '똑같이' 반복되어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했죠?

⑤ (가)와 (나)는 모두 화자의 인식을 자연물에 투영하여 시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.

→ 감정이입으로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만, 일단 자연물이 등장하면 허용할 수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시는 화자가 갖는 대상에 대한 인식(정서·태도·반응 등)에 기반해요.

43.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① 독백적 진술을 중심으로 인물의 내면 심리를 드러낸다.

→ 혼잣말 하듯! 청자의 유무부터 판단해야 합니다.

② 동시에 벌어진 사건들을 삽화처럼 나열하여 이야기의 흐름을 지연시킨다.

→ 네 삽화는 사이에 끼인 이야기라고 했어요.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나열해서 '흐름을 지연시킨다'라는 선지는 역시나 정답일 확률이 낮아요. 그래도 상황에 따라 실제로 중간에 삽입된 이야기 때문에 전개가 느려지는지 확인해야할 수도 있겠죠?

③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위를 해설하고 사건의 의미를 직접 제시한다.

→ 3인칭 시점!